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미래창조 금융• 따뜻한 금융• 튼튼한 금융
책 임 자	금융위 감사담당관 송 재 근(02-2156-9550)	담 당 자	김 영 진 사무관 (02-2156-9558)	
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김 동 환(02-2156-9490)		고 선 영 사무관 (02-2156-9932)	

제 목 :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

◇ 금융위는 「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」 기간(16.5.16~5.20.) 중 최근 사이버 위협을 재구성한 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

1 훈련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날로 지능화·고도화하는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하여 IBK기업은행, 금융감독원,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고현장 중심의 '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'을 실시
 - 이번 훈련은 민간 전문가와 주요 금융기관 임원을 포함하여 금융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, 실전 위주 훈련을 전개
 - 금융위원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가상의 재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,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등 훈련 현장을 직접 지휘

< 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개요 >

- 일시/장소 : 2016.5.19(목) 14:00~15:30, IBK기업은행 본점 15층
- 훈련내용 : 보안업체 인증서 해킹에 인한 금융전산 재난 발생을 가정하여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
- 참가기관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IBK기업은행, 금융보안원, 한국거래소, 금융결제원, 한국예탁결제원, 코스콤

2 주요 내용

- 동시 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기반시설인 금융전산시스템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*을 가정하고,
 -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사고 대응방안 토론 및 현장훈련의 병행 실시로 실전 재난대응역량을 강화
- * 보안업체 코드서명 인증서 해킹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로 인터넷 뱅킹의 마비, 디도스 공격, ATM 기기 중단, 시스템파일 삭제 등 금융권 위기 발생
- 금융위, 유관기관, 금융회사 간 합동 훈련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, 대응절차를 숙달
 - 해킹에 대한 IBK기업은행의 초동조치 후, 금융위는 체계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'금융전산 위기대응매뉴얼'에 따라 위기상황 대응반,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·운영
 - 대형 금융전산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사고복구 및 피해확산 차단조치 이행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고,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

3 향후 계획

- 이번 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금융전산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, 보완방안을 강구하여
 - '금융전산 위기대응매뉴얼'에 반영함으로써 금융전산 위기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fsc@korea.kr

